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이종화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A study o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Jong-Hwa Lee

Dept. of Dental Laboratory,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단면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차별요인, 주거환경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재활, 자립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보건복지부, 생활만족도, 장애, 장애인, 장애인 실태조사

Abstract This article tri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satisfaction of their life, as finding the determinants of the disabled through the cross-section research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article used data from the 2011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 for the Disabled,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the disabled in Korea. For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used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 Analysis of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conducte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up as 0.05. As the result, we found that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as influenced by all factors such as factor in discrimination, socioeconomic factors, disability and health factor. Therefore, we think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systemic method for extending right of the disabled and improving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Key Words : Disabled, Disability, Life satisfac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1. 서론

인간의 생활환경 변화와 더불어 삶에 대한 기대치를

비롯한 질(quality)에 대한 필요와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참여와 평등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Received 8 October 2014, Revised 10 Nov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Jo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Gimcheon University)

Email: hwa00700@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실현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도 차별을 없애야 하며, 모든 권익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장애로 인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005년 1,777,400명이었던 것이 2008년 2,246,965명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12월말 기준 2,501,112명으로 2005년 대비 723,712명이 증가하였으며[1], 이러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정책 수요의 다양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고용 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과 복지를 비롯한 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2].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본권 보장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문제를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3].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53.2%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6.8%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가 불만족 정도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지만[4], 여전히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5]으로 생활에서의 즐거움에 이르는 감정과 평안한 상태를 비롯한 삶의 목표와 주관적인 감정 상태인 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6].

또한 Medley[7]는 생활만족도를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감의 주관적인 태도와 감정으로 개인의 기대 및 충족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고,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란 개인의 기대와 수준이 합리적 방법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절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8].

한편, 생활만족도와 유사하게 연구된 주관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이나 활동을 하기 위

한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9], 장애인의 복지정책과 재활서비스의 목표는 장애인들의 각 요인 관계를 촉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10].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개념과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11,12]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3,14]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삶의 질 척도로는 양[15]이 개발한 삶의 질 척도와 Diener 등[16]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척도(WHOQOL-BREF)[17]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의 선행연구로는 신체 상태, 사회적지지, 경제수준, 사회참여, 장애수용[7],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특성[6] 및 사회통합, 환경요인[13], 우울, 신경증, 사회통합[14] 등과 관련된 연구와 배경변인, 스트레스 유형, 대처행동 유형[18] 등을 비롯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설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감[19],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20] 등 포괄적이면서도 삶의 다양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신체적 측면, 건강적 측면, 생활·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과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 세부적인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각 요인들을 통합하여 파악하기 보다는 특정 요인에서만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고, 장애와 관련된 요인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이 개인 가정과 사회 전반의 생활에서 겪는 차별적 요인을 비롯한 장애와 관련된 개인적 여건과 사회·환경적 실태 및 건강관련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알아본 결정요인[10]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조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4]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1년 5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표 모집단은 2010년 기준 등록 장애인이며,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90%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일반, 아파트)를 층화 확률비례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전국 추정수는 2,512,513명이다.

2.2 측정변수

2.2.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10]를 참고하여 차별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차별요인은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를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고, 장애문제 발생 시 상담자 구분을 '가족', '가족아님'으로, 가족 내 차별 폭력 유무는 '있다', '없다'로, 사회적 차별인지 정도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가끔 느낀다', '항상 느낀다'로 구분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정도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였다.

복지인지요인은 장애등록 혜택정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약간 받고 있다', '매우 많이 받고 있다'로 구분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를 '알고 있다', '들었지만 내용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로,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이용경험 여부는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요인은 주관적 소속계층을 '하층', '중층', '상층'으로 구분하였고, 가구소득은 월평균 소득(총소득금액)으로 하였다. 주거형태를 '단독주택'과 '기타'로 구분하였고, 주거위치를 '지상'과 '기타'로, 집의 소유형태를 '자가'와 '타가'로 구분하였으며, 집구조의 생활편리정도는 '매우불편하다', '약간불편하다', '약간편리하다', '매우편리하다'로 구분하였다.

장애요인은 장애등급을 1급-6급으로,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의 수준(ADL)을 1점 '완전자립', 2점 '부분도움', 3점 '완전도움'으로 ADL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함

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지원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함', '대부분 혼자함', '일부도움필요', '대부분 도움필요', '모든 일에 도움필요'로 구분하였다.

건강요인은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유무, 최근 1년간 병·의원 미수진 경험 유무, 현재 치료·재활·건강관리 등의 정기적 진료 유무, 지난 1년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유무,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유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 우울 경험 유무 등을 '예', '아니오'로 구분 하였고,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를 '많이 받음', '조금 받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를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나쁘다'로, '매우 좋다', '약간 좋다'로 응답한 경우를 '좋다'로 구분하였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현재의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의 생활만족도로써 하위요인으로 '귀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귀하가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곳(집)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귀하의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귀하의 한 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귀하가 하시는 여가활동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등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으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영역에 포함된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합산하여 생활만족도로 나타내었다.

2.3 분석방법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차별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건강요인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생활만족수준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코딩 정리, 가변수 정리 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Variables	Total		Male		Female		
	N	%	N	%	N	%	
Gender	Male	1,451,552	57.8	1,451,552	57.8		
	Female	1,060,961	42.2			1,060,961	42.2
	Total	2,512,513	100	1,451,552	57.8	1,060,961	42.2
Age(years old)	M/SD	59.05	15.174	56.62	14.656	62.38	15.240
Educational backgrounds	Illiteracy	303,656	12.10	63,610	4.40	240,046	22.60
	Primary school	815,602	32.50	388,749	26.80	426,853	40.20
	Middle school	452,754	18.00	295,008	20.30	157,746	14.90
	High school	628,935	25.00	456,258	31.40	172,677	16.30
	College	83,252	3.30	65,540	4.50	17,712	1.70
	University	194,081	7.70	155,267	10.70	38,814	3.70
	Graduate school	34,232	1.40	27,119	1.90	7,113	0.70
	Total	2,512,512	100.00	1,451,551	100.00	1,060,961	100.00
Spouse state	Be	1,494,872	59.50	1,007,402	69.40	487,470	45.90
	Mateless	1,017,642	40.50	444,151	30.60	573,491	54.10
	Total	2,512,514	100.00	1,451,553	100.00	1,060,961	100.00
National basic livelihood assistance	No	2,095,047	83.40	1,233,029	84.90	862,018	81.20
	Yes	417,466	16.60	218,523	15.10	198,943	18.80
	Total	2,512,513	100.00	1,451,552	100.00	1,060,961	100.00
Kinds of disabilities	Physically disabled	1,617,766	64.40	934,070	64.30	683,696	64.40
	Mental disability	216,961	8.60	122,028	8.40	94,933	8.90
	Sensory disability	524,380	20.90	306,036	21.10	218,344	20.60
	Speech disability	17,182	0.70	12,890	0.90	4,292	0.40
	Interior disability	136,224	5.40	76,528	5.30	59,696	5.60
	Total	2,512,513	100.00	1,451,552	100.00	1,060,961	100.00
Economic activity	No	1,613,564	64.20	799,082	55.10	814,482	76.80
	Yes	898,949	35.80	652,470	44.90	246,479	23.20
	Total	2,512,513	100.00	1,451,552	100.00	1,060,961	100.00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M/SD	202.57	315.924	217.62	381.150	181.98	192.009
Average monthly household spending							
	M/SD	162.44	205.412	172.04	234.197	149.29	156.786

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은 $\alpha < 0.05$ 로 하였다.

본 연구의 복합표본조사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가구특성에 대한 주요 변수의 추정치와 그에 따른 상대표준오차를 구하여, 추정치의 정확성을 고려하였다.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의 통계치로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57.8%였고, ‘여자’는 42.2%였으며, 연령은 평균 59.1세(SD 15.2)였다. 학력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졸’이 32.5%로 가장 많았는데, 남자는 ‘고등졸’이 31.4%, 여자는 ‘초등졸’이 40.2%로 가장 많아 최종학력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이 59.5%,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이 40.5%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는 전체장애인의 83.4%가 ‘비수급’, 16.6%가 ‘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4.4%로 가장 많았고, ‘감각장애’ 20.9%, ‘정신지체장애’ 8.6%, ‘내부 신체장애’ 5.4%, ‘언어장애’ 0.7% 순이었다.

경제활동여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35.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64.2%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202만 6천원이었고, 월평균 지출은 162만 4천원이었다.

3.2 주요변수의 현황과 수준

3.2.1 차별요인의 특성

차별요인의 특성에서는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37.4%의 장애인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상담자는 61.9%가 가족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지 유무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3.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약간 많다' 48.4%, 매우 많다 31.9%였으며, 장애란 이유로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사회적 차별인지 정도) 39.4%가 '느끼고 있다'고 하였고, 60.4%가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Table 2>.

<Table 2> Factor in discrimination

Variables		N	%
Disability occurrence	Yes	939,105	37.4
	No	1,573,408	62.6
A counselor for disability occurrence	Family	581,048	61.9
	No family	358,057	38.1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	Yes	168,107	6.7
	No	2,344,407	93.3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in Korea	Never	21,034	0.8
	Little	473,819	18.9
	A little	1,217,038	48.4
	Much	800,622	31.9
Your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lways	215,024	8.6
	Sometimes	772,916	30.8
	Little	928,594	37.0
	Never	595,980	23.7
Total		2,512,513	100.0

3.2.2 복지인지요인의 특성

복지인지요인의 특성에서는 장애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못 받음 44.9%, 약간 받음 34.2%, 전혀 못 받음 18.2%, 매우 많이 받음 2.7%순이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71.1%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이용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81.1%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Perception of welfare

Variables		N	%
Perception of support and benefit after registering as disabled	Very much	65,424	2.7
	A little	828,113	34.2
	Little	1,088,343	44.9
	Never	441,119	18.2
	Total	2,422,999	100.0
Perception of the 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Know well	193,343	7.7
	Don't know the contents even if hearing about it	532,066	21.2
	Don't know	1,787,104	71.1
	Total	2,512,513	100.0
The use of rehabilitation agency	Yes	494,660	18.9
	No	2,464,544	81.1
	Total	2,611,126	100.0

3.2.3 사회경제요인의 특성

사회경제요인의 특성에서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68.7%가 '하층'에 속한다고 하였고,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0.9%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월평균소득은 90만 원원이었으며, 희망하는 주거유형의 97%가 '일반주택'을 희망하였고, 현재 주거위치는 '지상'인 경우가 95.4%로 가장 많았다. 집의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59.4%가 '자가'에 살고 있었으며, 집구조의 생활편리 정도에 대해서 약간편리 48.4%, 약간불편 23.4%, 매우편리 21%, 매우불편 7.2%순이었다<Table 4>.

<Table 4> Socioeconomic factors

Variables		N	%
Your social rank	Low	1,726,531	68.7
	Middle	763,373	30.4
	High	22,609	0.9
The average monthly income	M/SD	90.1	270.061
Type of housing desired	General housing	2,436,697	97.0
	Others	75,816	3.0
	Total	2,512,513	100.0
Residential site	Ground	2,395,751	95.4
	Others	116,762	4.6
	Total	2,512,513	100.0
Home owner	Owner	1,493,323	59.4
	Others	1,018,978	40.6
	Total	2,512,301	100.0
Convenience of structure of the house	Very convenient	527,861	21.0
	A little convenient	1,216,006	48.4
	Little inconvenient	588,708	23.4
	Very inconvenient	179,938	7.2
	Total	2,512,513	100.0

3.2.4 장애요인의 특성

장애요인의 특성에서는 장애등급이 '1-3급'의 중증장애인이 38.9%, '4-6급'의 경증장애인이 61.1%로 나타났으며,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수준(ADL)은 1점에 가까울수록 완전자립, 3점에 가까울수록 완전도움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체평균이 2.89점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시 남의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생활 혼자함' 58.7%, '대부분생활 혼자함' 15.8%, '일부 도움필요' 13.2%, '대부분 도움필요' 6.4%, '모든 생활 도움필요' 5.9%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Disability factors

Variables	N	%	
Disability rating	Grade 1	165,902	6.8
	Grade 2	353,586	14.6
	Grade 3	423,751	17.5
	Grade 4	370,569	15.3
	Grade 5	523,202	21.6
	Grade 6	585,990	24.2
	Total	2,422,999	100.0
Activity of daily living	M/SD	2.892	.343
	By oneself	1,474,791	58.7
	Almost by oneself	397,467	15.8
Assistance from others in every life	Necessity of aid partially	331,530	13.2
	Necessity of aid for the great part	161,298	6.4
	Necessity of aid for all	147,428	5.9
	Total	2,512,513	100.0

3.2.5 건강요인의 특성

건강요인의 특성으로 최근 2년간 건강관리검진 유무에서는 62.3%가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받고 있었으며, 최근 1년간 병·의원 미수진 경험유무는 18.8%가 미수진 경험이 있었고,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정기적 진료유무에 대해서는 72.3%가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유무에서는 47.1%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3개월 이상 지속 만성질환유무에서는 71.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고, 평소 자신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63.5%가 '나쁘다'고 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 경험유무에서는 21.4%가 우

울경험이 있었으며,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53%가 스트레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Health factor

Variables	N	%	
Health screening during the last 2 years	Yes	1,566,236	62.3
	No	946,277	37.7
	Total	2,512,513	100.0
Accessing to hospital during the last 1 year	Yes	473,277	18.8
	No	2,039,236	81.2
	Total	2,512,513	100.0
Regular check-ups such as cure, rehabilitation and health care at the present	Yes	1,816,612	72.3
	No	695,901	27.7
	Total	2,512,513	100.0
Exercise for health care during the last 1 year	Yes	1,183,942	47.1
	No	1,328,571	52.9
	Total	2,512,513	100.0
Chronic disease that lasts more than 3months	Yes	1,79,3631	71.4
	No	718,883	28.6
	Total	2,512,513	100.0
Self-assessment of health	Good	915,915	36.5
	Being poor	1,596,598	63.5
	Total	2,512,513	100.0
Depression	Yes	537,476	21.4
	No	1,975,038	78.6
	Total	2,512,513	100.0
Stress	Much	1,332,461	53.0
	A little	1,180,052	47.0
	Total	2,512,513	100.0

3.3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 I에서 차별요인을 투입한 결과<Table 7>,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에서 '문제 발생이 있는 경우'에 비해 '문제 발생이 없는 경우'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시 주상담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 비해 '가족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 유무에서는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별로 없음'에 비해 '전혀 없음'이, '약간 많음'에 비해 '전혀 없음'이, '매우 많음'에 비해 '전혀 없음'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Table 7> The determinants for life satisfaction(factor in discrimination)

Model I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p)
(Constant)	1.994	0.004	506.576***
Disability occurrence(0=Yes, 1=No)	0.240(0.211)	0.001	296.682***
A counselor for disability occurrence(0=Family, 1=No family)	-0.005(-0.003)	0.001	-4.794***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the family(0=Yes, 1=No)	0.218(0.099)	0.001	161.139***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in Korea			
(0=Never, 1=Little)	-0.033(-0.024)	0.004	-9.219***
(0=Never, 1=A little)	-0.016(-0.014)	0.004	-4.401***
(0=Never, 1=Much)	-0.048(-0.041)	0.004	-13.380***
Your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0=Always, 1=Sometimes)	0.130(0.109)	0.001	102.554***
(0=Always, 1=Little)	0.198(0.174)	0.001	153.134***
(0=Always, 1=Never)	0.383(0.296)	0.001	281.643***
***p<0.001	F=42961.662	p=0.001	Adjusted R ² =0.133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이유로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사회적 차별 본인인지 정도) ‘항상 느낌’에 비해 ‘가끔 느낌’, ‘항상 느낌’에 비해 ‘별로 느끼지 않음’, ‘항상 느낌’에 비해 ‘전혀 느끼지 않음’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42961.662,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

합함을 알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1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 복지인지요인을 투입한 결과<Table 8>,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받음’에 비해 ‘매우 많이 받음’, ‘별로 못 받음’에 비해 ‘매우 많이 받음’, ‘전혀 못 받음’에 비해 ‘매우 많이 받음’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

<Table 8> The determinants for life satisfaction(perception of welfare)

Model II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p)
(Constant)	2.588	0.002	1327.659***
Perception of support and benefit after registering as disabled			
(0=Very much, 1=A little)	-0.036(-0.031)	0.001	-24.242***
(0=Very much, 1=Little)	-0.113(-0.102)	0.001	-77.092***
(0=Very much, 1=Never)	-0.143(-0.098)	0.002	-89.162***
Perception of the 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0=Know well, 1=Don't know the contents even if hearing about it)	-0.138(-0.106)	0.001	-96.521***
(0=Know well, 1=Don't know)	-0.285(-0.238)	0.001	-217.500***
The us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agency			
(0=Yes, 1=No)	-0.096(-0.065)	0.001	-103.840***
***p<0.001	F=16102.033	p=0.001	Adjusted R ² =0.037

<Table 9> The determinants for life satisfaction(socioeconomic factors)

Model III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p)	
(Constant)		2.367	.001	1838.753***
Your social rank				
(0=Low, 1=Middle)	0.223(0.186)		.001	292.919***
(0=Low, 1=High)	0.495(0.085)		.003	147.616***
The average monthly income	0.085(0.175)		.000	281.079***
Type of housing desired(0=General housing, 1=Others)	-0.336(-0.104)		.002	-183.123***
Residential site(0=Ground, 1=Others)	-0.037(0.014)		.002	-24.660***
Home owner(0=Owner, 1=Others)	0.035(0.031)		.001	50.512***
Convenience of structure of the house				
(0=Very convenient, 1=A little convenient)	-0.202(-0.183)		.001	-246.156***
(0=Very convenient, 1=Little inconvenient)	-0.291(-0.224)		.001	-303.424***
(0=Very convenient, 1=Very inconvenient)	-0.509(-0.238)		.001	-369.159***
***p<0.001	F=66619.671	p=0.001	Adjusted R ² =0.193	

지법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내용 모름’에 비해 ‘알고 있음’이, ‘알지 못함’에 비해 ‘알고 있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용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없음’에 비해 ‘있음’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

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16102.033,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에서 사회경제요인을 투입한 결과<Table 9>, 장애인들의 본인인지 소속계층에 대해서 ‘하층’에 비해

<Table 10> The determinants for life satisfaction(disability factors)

Model IV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p)	
(Constant)		2.289	0.005	418.960***
Disability rating				
(0=Grade 1, 1=Grade 2)	0.044(0.028)		0.001	32.378***
(0=Grade 1, 1=Grade 3)	0.034(0.023)		0.001	25.051***
(0=Grade 1, 1=Grade 4)	0.023(0.015)		0.001	16.397***
(0=Grade 1, 1=Grade 5)	0.019(0.014)		0.001	13.990***
(0=Grade 1, 1=Grade 6)	0.099(0.076)		0.001	72.159***
Activity of daily living	0.119(0.074)		0.002	65.820***
Assistance from others in every life				
(0=By oneself, 1=Almost by oneself)	-0.159(-0.105)		0.001	-171.377***
(0=By oneself, 1=Necessity of aid partially)	-0.273(-0.168)		0.001	-257.966***
(0=By oneself, 1=Necessity of aid for the great part)	-0.473(-0.210)		0.002	-307.872***
(0=By oneself, 1=Necessity of aid for all)	-0.493(-0.210)		0.003	-183.068***
***p<0.001	F=46563.930	p=0.001	Adjusted R ² =0.156	

‘중층’이, ‘하층’에 비해 ‘상층’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월평균소득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거 유형 형태는 ‘기타’에 비해 ‘일반주택’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주거 위치는 ‘기타’에 비해 ‘지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 소유형태는 ‘타가’에 비해 ‘자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구조의 생활편리 정도는 ‘약간편리’에 비해 ‘매우편리’가, ‘약간불편’에 비해 ‘매우편리’가, ‘매우불편’에 비해 ‘매우편리’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66619.671$,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1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V에서 장애요인을 투입한 결과<Table 10>, 장애등급이 ‘1급’에 비해 ‘2급’이, ‘1급’에 비해 ‘3급’이, ‘1급’에 비해 ‘4급’이, ‘1급’에 비해 ‘5급’이, ‘1급’에 비해 ‘6급’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의 수준(ADL)은 완전자립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일상생활시 남의 도움 정도는 ‘대부분생활 혼자함’에 비해 ‘모든 생활 혼자함’이,

‘일부도움필요’에 비해 ‘모든 생활 혼자함’이, ‘대부분 도움필요’에 비해 ‘모든 생활 혼자함’이, ‘모든 생활 도움필요’에 비해 ‘모든 생활 혼자함’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46563.930$,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15.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V에서 건강요인을 투입한 결과<Table 11>, 최근 2년간 건강관리검진 유무에서 ‘아니오’에 비해 ‘예’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병·의원 미수진 경험 유무는 ‘예’에 비해 ‘아니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정기적 진료 유무에서는 ‘아니오’에 비해 ‘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유무에서는 ‘아니오’에 비해 ‘예’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이상 지속 만성질환유무에서는 ‘예’에 비해 ‘아니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에 자신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는 ‘나쁨’에 비해 ‘예’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 경험유무에서는 ‘예’에 비해 ‘아니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Table 11> The determinants for life satisfaction(health factor)

Model V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β)	SE	t(p)
(Constant)	2.483	0.001	2093.050***
Health screening during the last 2 years(0=Yes, 1=No)	-0.095(-0.083)	0.001	-153.589***
Accessing to hospital during the last 1 year(0=Yes, 1=No)	0.119(0.085)	0.001	155.884***
Regular check-ups such as cure, rehabilitation and health care at the present(0=Yes, 1=No)	-0.041(-0.033)	0.001	-43.895***
Exercise for health care during the last 1 year(0=Yes, 1=No)	-0.196(-0.177)	0.001	-330.620***
Chronic disease that lasts more than 3months(0=Yes, 1=No)	0.147(0.120)	0.001	155.062***
Self-assessment of health(0=Good, 1=Being poor)	-0.315(-0.275)	0.001	-448.286***
Depression(0=Yes, 1=No)	0.203(0.151)	0.001	270.228***
Stress(0=Much, 1=A little)	0.198(0.179)	0.001	317.955***
*** $p<0.001$	$F=135793.653$	$p=0.001$	Adjusted $R^2=0.302$

경험 정도에서는 ‘많이 느끼는 편’에 비해 ‘조금 느끼는 편’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 전체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 = 135793.653$ 유의확률 0.00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회귀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30.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 6,0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백분율의 분포 등 통계치들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전국 추정수 2,512,513명을 통계치로 제시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별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요인, 건강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차별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별요인에서는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고, 문제 발생시 가족 상담과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에 대한 차별경험정도가 빈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비장애인에게 겪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소외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인지요인에서는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매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지한 경우와,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알고 있을 경우를 비롯한 직업재활 시설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오와 정[10]을 비롯한 김과 정[22]의 장애인에게 있어 복지사업 서비스와 건강보호 체계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경험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낮은 인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역사회 재활 시설이용경험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인식과 이용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경제요인에서는 주관적 소속계층이 ‘상층’이며, 장애인 개인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경제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장애와 관련된 신체 상태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고 한 연구[23]를 비롯한 오와 정[10]의 주관적 소속계층이 ‘상층’일수록, 생활만족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고 한 보고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장애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지원체계의 정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하는 주거형태에서는 ‘일반주택’을 희망하며, 현재 주거위치가 ‘지상’일 때, 주거 소유형태는 ‘자가’이며, 집구조의 생활이 매우 편리한 경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부적절한 주거환경이 재가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공간과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10]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요인에서는 장애등급이 ‘경중’이고,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 완전자립에 가까울수록, 일상생활시 ‘모든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오와 정[10]의 연구에서도 장애등급이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보고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의 신체 상태가 활동 제한 및 접근성을 저해함으로써 활동지원을 비롯한 재활 서비스 등의 확대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요인에서는 최근 2년간 건강관리검진을 수검한 경우와 최근 1년간 병·의원 미수진 경험이 없고,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정기적 진료를 받으며, 지난 1년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과 3개월 이상 지속 만성질환

이 없을 때,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좋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 경험이 없으며,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를 조금 느낄 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증진행동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연구[22]와 장애인의 스트레스 관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24], 이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 등의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적 접근성의 한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없는 배려와 장애인의 문화적 참여 등을 고려한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 통계라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한 연구였지만, 단면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들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제한점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요인 간에 관계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변수설명을 위한 설문 자료가 제한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조사 대상 장애인들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었고,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장애인 대상자를 범주화 하고, 우리나라의 성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인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둘째, 이전연구와는 달리 단순히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시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더욱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재활, 자립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4 Gimcheon University Research Grant.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Registered Disabled, 2014.
- [2]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3 Disabled Statistics, 2013.
- [3] M. S. Kim, UN Convention on Disability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Effect of Treaty Reservation and the Incidental Opinion of the Parliament. *Journal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Vol. 6, No. 1, pp. 169-209, 2012.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2011 Survey of Disabled, 2012.
- [5] Chung-Hwa Han, Structur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0.
- [6]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McGraw-Hill, 1981.
- [7] DOI: <http://dx.doi.org/10.1093/geronj/31.4.448>
- [8] M. S. Ko, D. J. Kim,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es of the Female Disabled on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isability & Employment*, Vol. 24, No. 2, pp. 137-164, 2014.
- [9] Ja-Kyung Park,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theoretical model and its empirical tes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2009.
- [10] H. K. Oh, D. J. Jung, A Study of Determinant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Pers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4, No. 3, pp. 151-173, 2010.
- [11] S. H. Park, Social validation of the components of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4, No. 2, pp. 72-120, 2000.
- [12] S. D. Park, E. S. Kim, A Study on Types of 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Life(QOL)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y.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 40, pp. 105-124, 2002.
- [13] Eun-Ryoung Pai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2003.
- [14] Sung-Wook Li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 2006.
- [15] O. K. Yang,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 24, pp. 157-198, 1994.
- [16]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17] J. R. Lee, C. M. Park, Quality of Life Using WHOQOL-Bref in Taegu.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 10, No. 3, pp. 129-154, 2000.
- [18] H. J. Park, K. R. Park, The Stress, Coping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Vol. 13, No. 5, pp. 625-636, 2004.
- [19] M. S. Chung, S. I. Kang,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mentally disabled resident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4, pp. 81-108, 2010.
- [20] S. Y. 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ll from the perspective of ecosystem.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 [21] J. S. 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 -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Korean Governance Review, Vol. 16, No. 1, pp. 79-105, 2009.
- [22] G. S. Kim, J. H. Jeong,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Disabled Perso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4, No. 1, pp. 47-70, 2007.
- [23] Ja-Kyung Park,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theoretical model and its empirical test,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2009.
- [24] J. T. Kim,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Life Quality of Participants in Lifetime Sports Program,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 19, No. 1, pp. 43-55, 2011.

이 종 화(Lee, Jong Hwa)



- 2004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보건학사
- 2007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박사수료
- 2012년 09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기공학, 보건학
- E-Mail : hwa00700@hanmail.net